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의 딸들과 아들들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고, 또 모든 것은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오푸스데이 100주년 준비의 여정에서도, 성 호세마리아가 자주 묵상했던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성인께 하느님의 일이라는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직 이루어 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원에 대한 충실함 안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편 교회와 더불어 오푸스데이의 주보성인이신 성 요셉 축일을 기념합니다. 우리 창설자께서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이자 주님»이라고 부르시며, «항상 미소 짓고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모범이요 전구자로서, 성 요셉은 빛과 그늘,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며, 사랑과 충실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간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 요셉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한번 오푸스데이 설립 100주년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6월 10일에 저는 여러분께, 기념 행사가 2028년 10월 2일부터 2030년 2월 14일까지 오백 일에 걸쳐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평신도와 사제들의 일치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비를 구상하고 제안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전임 오푸스데이 단장이셨던 하비에르 주교님께서 자주 되풀이하셨던 «하느님의 사업은 우리 손안에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위원회와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지역 총회들의 주제는 «100주년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칠십 개국에서 울려 온 이 진정한 목소리들의 합창을 바라보면서, 저는 일치와 충실함의 정신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정신은 항구적인 사도적·영적 쇄신의 토대이며, 우리는 각 시대의 기로에 응답하기 위해 이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젊은이와 어른들, 오푸스데이 회원들,

협력자들, 친구들, 그리고 한때 오푸스데이의 일원이었던 많은 분들이, 성 호세마리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정신을 역동적인 충실함으로 오늘날 어떻게 구현할지 숙고하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로운 성찰, 겸손한 검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선»*, 이것이 100 주년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여 안에서,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이 특별한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가정, 일, 그리고 양성입니다. 가정에 관한 여러분의 성찰을 읽으면서, 각 가정이 나자렛 가정을 반영하는 참된 *«가정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새로워진 열망이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일이 단순한 인간적인 과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장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직업적·사회적 현실의 끊임없는 변화는 복음이 일의 의미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노동 관계와 모든 형태의 일을 인간화하고 —따라서 그리스도교화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일상의 노동을 의미 있고 너그러운 봉사로 변화시키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받는 양성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상을 내부에서부터 생동감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이의 희망과 필요를 담아낸 이 귀한 자료들을 계속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상황은 고무적인 동시에 섬세한 균형을 요구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푸스데이는 교회의 일부로서 이 세상의 우여곡절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약 4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성좌에서 연구 중인 규정 적용 과정을 넘어서, 우리에게서 오늘날 교회가 섬김 받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풍성한 도전과 기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양성 수단에 참여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정의 친교를 통해 불러일으키시는 회심들과 새로운 사도적 계획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생동감은 열매가 비롯되는 하느님의 활동을 인정하는 기회이며,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나의 많은 아들딸들—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기회입니다.

동시에, 이 연속성의 단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도전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사도적 독신 생활로의 부르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신도와 사제 모두에서 고령자들의 세대교체 어려움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에서 사명을 계속 수행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지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적된 바와 같이— 젊은이들과의 사도적 활동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슈퍼뉴머러리 회원(기혼회원)들의 진정한 주도적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이가 이 세밀한 사도직의 최전선에 서고 부채처럼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 양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100 주년에 관해 여러분께 보낸 첫 번째 메시지에서부터 대략 5 년이 지났으며, 우리는 기념 행사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앙 자문단과 총평의회와 합의하여, 저는 여러분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을 목상하며 그 순간을 영적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온갖 신분과 출신의 남녀로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인께서는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푸스데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어딘가에서 찾으려 한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깊이 살았습니다. 세례라는 단순하고도 숭고한 사실로 인해 부름 받은 완덕을 진지하게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다른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대화”, 24 항).

이러한 배경 안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오푸스데이 정신의 핵심적인 몇 가지 측면들을 더욱 깊이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성 호세마리아는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와 표현들로 요약하였으며, 이것들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과제입니다. 지난 2 월 19 일, 사제들과의 만남에서 레오 14 세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요한 4,10). 그리고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알듯이, 창조적인 책임을 살아가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우리의 창의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느님의 사업에 협력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오로가 티모테오에게 한 말씀은 참으로 빛을 밝혀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라는 것입니다."(2 티모 1,6)»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불태우는 것,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특별히 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10월 2일까지 세상 한가운데에서 *관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을 더욱 깊이 탐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 아버지성인께서는 오푸스데이 정신의 많은 요소들을 압축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됨, 우리 실존의 중심이자 뿌리인 미사, 일상생활의 가치, 그리고 일과 가정과 시민 생활의 가장 평범한 현실들 속에 숨겨진 «신적인 의미, 즉,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음 해, 2028년 10월 2일 100주년이 시작될 때까지, *우정과 친밀함*에 관한 성 호세마리아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른 이들에게 «지나가시는 그리스도»가 되고, 다른 이들 안에서도 그분을 발견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소명에서 우정은 복음화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정의 유대 안에서 우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28년 10월 2일부터 2030년 2월 14일까지 세속성의 관점에서 *일에* 관해 묵상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호세마리아의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일을 거룩하게 하고, 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일로써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 세상의 변혁을 이끌면서 말입니다. 성화의 기회로서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문시되는 현재, 일에 관한 성 호세마리아의 메시지는 특별한 가치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문화적 변화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을 의미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성 호세마리아의 이 세 가지 핵심 가르침을 성찰하며 영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과 교회와 온 사회를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을 «평화와 기쁨의 씨 뿌리는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성인이신 호세마리아 성인의 권고에 맞추어 이 지향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오푸스데이(하느님의 일)가 시작된 이후로, 나는 같은 것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낮과 밤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1973년 3월 28일 편지, 5항).

성 요셉의 삶은, 갈릴래아의 가장이자 노동자로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관상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100주년을 향한 이 여정에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서 전쟁과 파괴로 점철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교황 성하의 기도에 진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총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 증오를 사랑과 용서의 감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빕니다.

온 사랑을 담아, 여러분의 아버지 페르난도가 강복합니다.

로마, 2026년 3월 19일.